

국가대표 여행지 전주한옥마을 효과

전주형 마이스산업 '무력무력'

전국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전주서 개최

워크숍과 함께 남부시장·한옥마을 관광 실시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를 소규모 학회와 워크숍, 컨벤션, 회의 등의 장소로 선택하는 단체가 늘면서 전주형 마이스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회의(Meeting)와 포상관(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마이스산업의 경우 주로 학회와 회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관광이 필수코스여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었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주를 회의장소로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매년 각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 98

개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가 일정비를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 및 회계직원을 위한 △세무회계 △기금정산 △스포츠클럽 성과평가 △중합정보시스템 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워크숍 참석자들은 전주남부시장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전주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워크숍이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시가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한체육회와 접촉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또한 올해 다양한 학회·기관 등도 전주를 전국단위 학회·회의·행사장소로 선택했다. 전라북도수의사회가 주최한 '2019 세계수의학도협회' 방문을 위해 170여명이 전주를 찾았으며, 전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의 '2019 춘계 정기학술대회'에는 약 600명이 찾았다 또, 200여명이 참석한 국어문화회의 '제66회 전국학술대회'도 전주에서 진행됐으며, 전라커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ROTC 국제 로스팅바탕회&로스팅캠프' 참석자 약 130명이 전주를 방문했다.

이외에도 시는 더 많은 소규모 학회와 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한국과학기술학회 학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

이스 캠퍼어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 학회 및 과학기술단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학회에는 현재 100여개 학회가 입주해 있어, 시는 이번 캠퍼어를 통해 향후 전주를 학회장소로 선택하는 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문화시설, 전주지역 주요 호텔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에 집중해왔다. 이는 마이스산업이 일반 개별여행객과 비교해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여행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과 관광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자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전주시설공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

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단은 2014년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성환 이사장은 "직원들이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직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내의 축구팬들에게 '전주 전통문화' 홍보

전주시·전북현대·협동조합 누비온, 미디어 콘텐츠 개발 전개

전주시가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FC의 SNS채널을 활용해 국내외 축구팬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 소셜미디어 마케팅 협동조합인 누비온과 함께 전주가 간직한 찬란한 역사·문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6월 실시한 프로축구를 통한 관광패키지 육성지원 전문가 포럼'에서 축구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전통도시'이자 '축구도시'라는 전주의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공식 SNS 채널이 보유한 전국적인 파급력과 30%에 이르는 높은 외국인 팔로워 비중에 주목하고, 축구팬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시는 전북현대 공식 콘텐츠를 제

작하는 지역 청년기업 누비온과 함께 축구에 지역의 강점인 역사와 문화에 축을 녹여낸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달부터 공동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펼쳐왔다.

세부적으로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경기 일정에 맞춰 △전주비빔밥축제 홍보 △전주한옥마을 속의 역사 △소리의 고장 전주의 세 건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축구팬들에게 알렸다. 나아가 전주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전북현대 응원가의 음원화 작업을 진행, 전주의 자랑인 판소리의 대중화까지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허재우 누비온 협동조합 이사는 "지역 청년들이 전북 현대와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전주시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북 현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노송예술촌 예술책방 '물결서사' 1주년

성매매집결지, '문화예술마을'로

성매매집결지인 전주시 선미촌 한복판으로 들어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에 7인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선미촌 한 가운데서 운영 중인 예술책방 '물결서사'에 지난 1년간 열 세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약 1000명이 다녀가는 등 서노송예술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술책방 물결서사는 시가 옛 성매매업소와 낡은 가옥을 사들인 공간에 들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바탕으로 어두웠던 선미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물결서사에서 열린 박준 시인의 시 낭독회 모습.

창작공간·마을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참여한 7인의 예술가들은 각기 요일을 정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책방을 지키고 있으며, 운영 초기 하루에 손님 한 명 올까말까 한산했던 작은 책방은 입소문을 타고 어느덧 연간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명소가 됐다. 이는 물결서사가 개소 이후 한 해 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물결서사는 동네책방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예술가들은 책을 선정하여 소개하기도 한다. 때로는 동네 주민이 주인공이 돼 살 아온 얘기를 풀어놓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인의 시낭독회와 북토크, 동네주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조현상 성악가의 데뷔 무대 △레이린·김수타의 노래 공연 △'출판계의 이변'이라는 말을 듣는 베스트셀러 작가 박준 시인 방문 △대도시의 사법법 '저자이자 다수의 작가상

을 수상한 박상영 작가의 팬미팅 △타지역 예술가 그룹과의 교류 △SK텔레콤과 협업한 청년갤러리 전시 활동 등 서노송동에서 추진된 문화예술행사가 모두 물결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7인의 예술가들은 또 동네 야시장과 전주독서대전 등 주요행사 때마다 책방 부스를 운영, 책을 팔고 물결서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에서는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물결서사 부스를 방문해 도서를 구매하거나, 책갈피 만들기 체험 등을 함께 했다.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는 "물결서사가 선미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나아가 낯다른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며 "누군가에게는 어둠과 피하고 싶은 공간인 선미촌이지만, 물결서사는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힘 모아 예술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청, 전주시의회 의원 11명 초청 치안협력 간담회

전북경찰청은 27일 전주시의회 의원 11명을 초청해 지역 치안협력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주시의회 방문단은 사회적 약자보호, 안전속도 5030, 수사구조 개혁 등 전북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공공체 치안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식 청장은 "서곡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민원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회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다운 기자

전북경찰, 민·경 야간 순찰

전북경찰청이 27일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 협의회, 경발위, 시민경찰 등 70여명과 함께 협력단체와 함께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순찰에 참여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업무에 적극 협력해 온 자율방범대원, 생활안전협의회원, 시민경찰 등 3명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제시 아파트·주택·원룸 등이 위치한 검산 택지조성 지역 일대와 청소년 음주·흡연 등 탈선이 우려되는 공인 지역을 순찰하며 직접 지역 치안을 살폈다. /정다운 기자

재난대응 훈련 시민 표창



전주시는 27일 전주부시장실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앞서 지난 9월 25일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3명의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시민으로 선정된 인물은 △훈련참여기관·단체의 협력체계구축에 힘쓴 이경록 소방경(덕진소방서 구조팀장)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화학 인명제독 차량 등 특수 차량을 동원해 구조지원을 도운 신광진 소방사(익산119 화화구조센터) △육상에 대피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헬기로 신속하게 구조한 한양수 준위(제216 부대)이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사회복무대상 복무관리 '우수' 선정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가 병무청에서 실시한 제6회 사회복무대상(大賞) 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7일 충북 보은 사회복무요원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사회복무대상(大賞)은 전국에 있는 일반 일천여개 복무기관 중에서 전년도 복무기관 평가 결과, 상등급 기 중 중 복무인원이 다수이면서 낮은 복무부담률, 기관장의 관심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우수 복무기관을 선정했다.



표창수여 및 특별휴가 부여 등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로사항 및 의견 등의 청취로 성실복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는 13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며,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별하

전북도내 군부대 A대령, 성추행 혐의로 구속수사

전북 한 군부대에서 육군 모 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여군 부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대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대령은 무기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추행하고 사적으로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 여군은 이날 초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대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A대령을 즉시 보직 해임했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처분 절차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위촉 기념 제막식

전북경찰청이 CU편의점과 동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는 협업을 맺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CU편의점(김제살레점)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도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위촉 기념 제막식'을 가졌다.

본 제막식은 전북경찰과 함께 BGF 권역장 및 영업부장, 편의점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장학생, 검산소 경찰



등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확대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을 이용해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 경찰에 연계하는 '공통체 치안 활동'이다. /정다운 기자

전주시보건소 2019년 출산준비교실 성료

전주시가 출산준비교실을 통해 예비부부의 성장을 도왔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올해 출산을 앞둔 전주지역 예비부부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출산준비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출산준비교실은 부모교육 전문강사와 국제모유수유 전문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총24회에 걸쳐 이뤄졌다. 주요 교육내용은 △모유수유 자세 및 중요성 △신

생아 목욕 및 마사지 방법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산전요가 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보건소는 올해 교육 운영 시 예비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한 예비아빠를 대상으로 임신체질복 착용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돕는 등 육아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닌 '함께하는 육아'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다.

보건소가 출산준비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출산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 △출산준비교실 지속 시 다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의견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또는 주말 교육 개설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이외에도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후유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건강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